

축구 경기로 빗대어 본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

한미FTA는 1%의 이익을 위해 99%를 희생시킵니다.
더욱이 한미 양국간 너무나 불공정하기 까지 합니다.
이런 '룰'로는 결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.

독소조항5. 비위반 제소 :

"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페널티 킥을 준다."

한국정부가 세금, 보조금, 규제, 불공정거래 시정, 소비자 보호 등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, 이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'기대하는 이익' 을 얻지 못 했다고 판단되면, 미국정부가 국제민간기구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.

(예)

- 한국정부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직불금과 같은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미국 수출업자가 보조금 때문에 관세 철폐 또는 인하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소송을 낼 수 있음.
- 한국정부의 뽕조각 쇠고기 반송 조치, GMO(유전자 변형식품)표시 제도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.
-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한국정부의 그 어떠한 '합법적 조치'도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'기대하는 이익'에 반하면 미국정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, 이기면 '합법적 조치'의 무효화와 함께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.

